動向分析

要 約

▷ 주요 목차 ◁

Ⅰ. 勞動市場
Ⅱ. 勞使關係.

Ⅰ. 勞動市場

○ 經濟一般

1992년 2/4분기
경제성장률 6.0%
제조업 성장률 8.6%
소비자물가상승률 7.0%

1992년 2/4분기의 경제성장률은 민간소비 둔화와 건설투자 감소 등으로 전분기의 7.4%보다 1.4%포인트 하락한 6.0%를 시현하였다. 그러나 제조업 생산증가율은 8.6%로서 전산업 평균보다 높은 성장률이 지속되어 성장내용이 충실해지고 있다. 중화학공업은 자동차, 선박, 화학제품 등의 수출호조로 12.1% 성장한 반면 섬유, 완구, 신발 등 경공업부문은 인력부족과 국제경쟁력 약화에 따른 수출부진으로 성장률이 1.2%의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한편 1992년 2/4분기에 도매물가는 전년동기대비 3.3%, 소비자물가는 7.0% 상승하였다. 이는 지난 동기보다 각각 2.5%포인트, 1.8%포인트 하락한 결과로 안정성장정책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안정성장의 결과로 1992년도에는 인력부족이 완화되고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에서 고용안정이 보다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 雇 傭

1992년 2/4분기
경활인구 2.0% 증가
취업자 1.9% 증가
실업률 2.2%

1992년 2/4분기에 경제활동인구는 전년동기대비 2.0% 증가하고 취업자는 1.9% 증가하여 실업률은 2.2%로 계속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1992년 2/4분기중 경제의 감속성장 추세에 따라 노동수요증가가 둔화되어 노동력부족현상이 약간 완화되고 있으나 노동력증가도 같이 둔화되어 실업문제는 발생하고 있지 않다.

1992년 2/4분기에도 경제활동인구는 그 구성상 여성화·고령화 그리고 고학력화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20~24세 연령층의 경제활동인구는 전년동기대비 1.7% 증가에 그쳐 증가율이 전년동기의 4.6%보다 크게 낮아졌다. 한편 25~54세의 핵심노동력계층의 경제활동인구는 전년동기에 비해 1.6% 증가하여 안정증가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그리고 이 연령계층의 경제활동 증가는 남성이 주도하고 있으며 여성은 단기적 등락이 심해 부차적 노동력의 특성이 나타나고 있다. 한편 55세 이상의 경제활동인구는 전년동기대비 6.0% 증가하여 노동력의 고령화 추세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1992년 2/4분기의 연령계층별 실업자 구조를 보면 15~19세가 10.3%, 20~24세가 6.6%로 전년동기대비 각각 1.4%포인트, 0.2%포인트 증가하여 노동시장의 신규 진입자의 취업애로가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92년 2/4분기
산업별 취업자
제조업 2.1% 감소
건설업 9.0% 증가
서비스업 5.9% 증가

1992년 2/4분기의 산업대분류별 취업자 동향을 보면 제조업은 1991년 4/4분기에 시작된 취업자의 절대수 감소추세가 더욱 확산되어 전년동기대비 2.1%나 감소했다. 이는 주로 섬유, 신발 등 노동집약적 산업에서의 고용감소의 결과이다. 한편 건설업은 건설경기 진정대책의 효과로 고율증가 추세는 안정되어가고 있는 반면 서비스업은 내수경기의 호조로 취업자가 전년대비 5.9% 증가하여 전년동기의 4.7% 증가율보다 크게 높아져 제조업에서 서비스부문으로의 노동이동이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1992년 2/4분기
직종별 취업자
생산직 1.1% 감소
사무직 10.7% 증가

1992년 2/4분기의 직종대분류 취업자 동향을 보면 민간소비지출이 안정되면서 판매·서비스직은 낮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반면 전문·기술·행정관리직과 사무직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11.2%, 10.7% 증가하여 우리 경제의 고도화 및 제조업의 소프트화 추세를 반영하고 있다. 한편 생산직의 경우 섬유, 신발 등 노동집약적 제조업과 건설업의 성장률 둔화 및 생산직 노동공급감소를 반영하여 전년동기의 4.2% 증가에서 반전되어 1.1% 감소하여 1992년 1/4분기 이후의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1992년 2/4분기
비농부문 고용형태
상시고 3.6% 증가
일고 2.1% 감소
비임금근로자 4.4% 증가

1992년 2/4분기의 비농부문 고용형태변화를 살펴보면 常時雇는 전년동기대비 3.6% 증가한 반면 日雇는 건설경기 안정으로 2.1% 감소한 결과 노동시장의 고용안정률이 1990년 2/4분기 이후 계속 상승하고 있다. 한편 상시고는 전년동기의 4.7%보다 증가율이 낮아져 제조업의 생산직 감소현상을 반영하고 있다. 한편 비농부문 비임금근로자 증가율은 4.4%로서 임금근로자 증가율 2.7%보다 높아 경제의 서비스화에 따른 자영업자의 빠른 증가추세를 반영하고 있다.

○ 賃 金

1992년 2/4분기
정액급여 15.6% 증가
초과급여 13.6% 증가
특별급여 10.1% 증가
임금총액 14.4% 증가

1992년 2/4분기중 월평균 임금총액은 전년동기대비 14.4% 상승한 816천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작년동기의 상승률 18.0%보다 3.6%포인트 감소한 수준인데 주로 특별급여의 낮은 상승에 기인한 결과이다. 한편 총액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초과급여나 자연승급분을 감안하고 총액임금 비대상사업체의 임금상승을 고려하면 올해의 전산업 평균임금상승률은 13~14%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초과급여는 전년동기대비 13.9% 증가하여 전년동기의 11.2%보다 약간 높은 상승률을 시현하였다. 그러나 초과급여 상승률이 정액급여 상승률보다 낮은 이유는 고임금추세가 계속되면서 사용자는 초과근로를 되도록 억제하고 있고 생산직근로자 역시 소득상승으로 초과근로를 기피하여 초과근로시간이 감소한 결과이다.

1992년 2/4분기
직종별 임금
생산직 678천원
사무직 906천원

1992년 2/4분기의 직종별 임금은 생산직이 678천원, 사무직이 906천원으로 생산직/사무직 임금비율은 74.8로서 전년동기의 상대임금비율 73.7에 비해 직종간 격차의 완화추세가 계속되고 있다. 이는 생산직의 인력부족현상에 따른 노동시장적 요인과 노동운동이 생산직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노사관계 요인을 동시에 반영하고 있는 현상이다.

1992년 2/4분기
사업체규모간
임금격차 축소

1992년 2/4분기의 규모별 임금상승률을 보면 10~29인 규모의 영세기업은 18.6%, 500인 이상 대규모사업체는 12.6%로 나타난 결과 영세기업과 대기업과의 임금수준 격차는 1987년 이후의 확대추세가 역전되었다. 즉 500인 이상 대기업과 10~29인 규모 기업의 임금격차는 작년 2/4분기의 69.5에서 73.2로 그 격차가 축소되었다. 이는 대규모기업은 총액임금제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반면 소규모기업에서는 인력부족 및 한계기업의 도태로 높은 임금인상이 시현되었기 때문이다.

○ 勤勞時間

1992년 2/4분기
월근로시간
전산업 211.1시간
정상근로 0.7% 증가
초과근로 1.9% 감소

1992년 2/4분기중 월평균 근로시간은 211.1시간으로 전년동기대비 0.7시간 증가하여 1989년 이후 근로시간의 감소추세가 처음으로 역전되었다. 주당 근로시간은 전산업 평균이 48.6시간, 제조업은 50.0시간을 기록하고 있다. 근로시간의 단축추세가 역전된 이유는 1990년 10월 이후 300인 이상 기업의 법정근로시간 단축효과가 이미 현장에서 반영되었고 또한 최근 감속성장으로 고용을 늘리지 않고 근로시간을 조절하는 경영전략이 확산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 勤勞生産性

1991년
부가가치노동생산성
전산업 12.1% 증가
제조업 12.1% 증가
전기업 13.7% 증가

1992년 8월에 개정된 노동생산성 신지수에 따르면 1991년의 부가가치노동생산성은 12.1% 증가한 바 이는 1991년 임금상승률 17.5%보다 5.4%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한편 산업별 부가가치 노동생산성은 제조업이 12.1%, 광업이 7.8%, 전기업이 13.7%로 나타났다.

II. 勞使關係

○ 賃金交涉

1992년 9월말 현재
중점관리대상업체
교섭진도율 93.5%

1992년 9월말 현재 780개 임금교섭 중점관리대상업체 중 협약기간만료된 사업장 기준으로 교섭진도율은 93.5%로 나타났다. 공공부문은 상반기에 임금교섭이 100%(106개) 완료되어 조기 임금교섭타결을 주도하였으며, 민간부문은 674개사 중 557개사에서 타결되어 92.5%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다.

○ 勞使紛糾

1992년 9월말 현재
분규건수 209건
해결건수 196건
쟁의발생건수 2.3% 감소
노동손실일수 60.7% 감소

1992년 9월말 현재 노사분규는 총 209건이 발생하여 196건이 해결되었고 13건이 진행중이다. 노사분규건수는 전년동기대비 5건이 감소하여 2.3%의 감소율을 보여 안정적 노사관계가 전년에 이어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분규의 선행지표인 쟁의발생 신고는 9월말 현재 1,078건으로 전년동기대비 30.6% 감소하였다. 한편 건당 분규참가자수가 작년동기의 794명에서 437명으로 크게 감소하여 평균분규지속일수가 약간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손실일수는 전년동기대비 60.7% 감소한 192만 3천일을 기록하고 있다.

1992년 9월말 현재 노사분규를 원인별로 살펴보면 임금인상 59.8%, 단체협약 20.1%, 체불임금 12.0% 순으로 나타나는데, 전년동기에 비해 체불임금관련 분규가 급증한 것이 특징적이라 하겠다.